



#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 문화체육관광분야와 코로나19 대응 공조

### 송하진 도지사, 영상회의 열고 방역수칙 준수 강조 일상회복지원위서 소상공 스마트 기술보급 확대 건의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17일 도내 문화체육관광분야 유관기관·단체 및 관련업계 관계자들과 코로나19 관련 공조 협력 영상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급격하게 확산되고 있는 오미크론 변이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된 이후 도내 확진자 수가 최근 1주간 일평균 1,600명 수준에 육박하고, 코로나19 확진자 급증, 대응체계 전환 등으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문화체육관광분야 관계자와 긴밀한 코로나19 대응 공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개최됐다.

영상회의에는 송하진 도지사, 한국예술평화단체전북연합회(전북예총), 전북민족예술인총연합회(민예총), 전북도문화원연합회, 전북생활문화협의회 등 문화예술분야 4명, 전북도관광협회 등 관광분야 2명, 전북도장애인체육회 등 체육분야 2명, 전주노래연습장협의회, 인터넷PC문화협회전북지부 등 관련업계 2명 등 문화체육관광분야 유관기관·단체 9명이 참석했다.

전북도는 최근 우세종이 된 오미크론 변이 발생 현황에 대해 보고하고, 코로나19 대응체계 전환에 대한 설명을 진행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의 급격한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방역수칙 준수가 유일한 방인임을 강조하며, 기본방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17일 도내 문화체육관광분야 유관기관·단체 및 관련업계 관계자들과 코로나19 관련 공조 협력 영상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역수칙(마스크 상시 착용, 유증상 시 신속 검사와 자가격리 등)과 사회적 거리두기(불필요한 사적모임 자제 등) 준수, 백신 접종률 제고 등을 당부했다.

아울러, 70%정도 지급률을 보이고 있는 예술인 및 여행업 분야 민생안정금 지급 제고를 위해 지원금 신청 등을 홍보해줄 것을 협조 요청했다.

또한, 코로나19에 대한 질의응답을 진행하고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등 유관기관의 의견을 수렴했다.

송하진 지사는 "의료체계 마비와 위중증·사망자 증가를 방지하고, 일상 회복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급격한 확

산세를 막는 것이 급선무"라며 "각 기관·기업에서 개인 방역수칙 준수 독려와 소관시설 내 방역관리 강화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열린 '제8차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에 시도지사협의회장 자격으로 참석한 송하진 지사는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사업' 확대를 적극 건의했다.

'스마트상점 기술 보급사업'은 소상공인 점포의 경영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키오스크, 서빙로봇 등 스마트 기술을 보급하는 정책으로 지난 2020년부터 정부(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이와 관련해 송 지사는 "비대면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스마트상점 기술 보급 사업을 확대하면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은 물론이고, 상점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감염위험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국적으로 88만여 개에 달하는 식당과 카페 수(884,976개소)에 대비해 올해 사업은 0.64%에 불과한 5,500여 개소에서 추진된다"며 "소상공인 지원과 감염병 확산 억제 차원에서 사업량을 확대하고, 큐비 지원 비율을 상향 조정해줄 것"을 건의했다.

한편, 제8차 회의를 연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는 방역 전략과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민관합동기구로 김부겸 국무총리와 최재천 이화여대 에코과학부 석좌교수가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 송하진 지사는 자치안전본과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유호상 기자

## "목표는 종합 4위" ... 전북 선수단 출전

### 25~27일 전국 동계체전 개최... 코로나19로 작년 치러지지 않아 2년만에 열려 루지 등 시범종목 3개·빙상 등 정식종목 5개로 치러져... 스키 등서 선전 기대

제108회 전국동계체육대회에 출전하는 전북 선수단이 23년 연속 종합 4위에 도전한다.

17일 전북체육회에 따르면 25일부터 28일까지 서울과 경기, 강원, 경북 등에서 열리는 동계체전에 323명(임원 132명·191명)이 참가, 종합 4위를 목표로 출전한다.

이번 동계체전은 코로나19 여파로 지난해 치러지지 않아 2년만에 열리는 것이다. 대회는 빙상과 스키, 바이애슬론 등 정식종목(5개)과 아이스클라이밍과 루지 등 시범종목(3개) 등

총 8개의 종목이 펼쳐지며, 13세 이하부와 16세 이하부, 19세 이하부, 대학부, 일반부로 나눠 진행된다.

전북 선수단은 이번 대회에서 약 70개의 메달을 획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이번 대회에서 전북은 강세 종목인 바이애슬론에서 메달을 대거 획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컬링과 쇼트트랙, 피겨, 스키 등의 종목에서도 선전이 기대된다.

현재 전북체육회는 선수들의 컨디

션 조절 및 경기력 향상을 위해 선수 트레이너(AT)를 파견했으며, 오는 20일 사전경기(컬링)를 시작으로 본격 막이 오른다.

대회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개·폐막식은 치러지지 않으며, 전 종목 무관중 경기로 치러진다.

정강선 회장은 "선수들이 지금까지도 높은 훈련을 소화한만큼 좋은 성적을 거둘 것이라 믿는다"며 "베 이징동계올림픽에 대한 열기와 관심이 이번 동계체전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도민들의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 도,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총력 대응

### 김인중 농식품부 차관보와 도내 시·군 방역상황 점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확산속도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농식품부 김인중 차관보와 전북도는 17일 14개 모든 시·군을 대상으로 방역상황을 점검하고,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

멧돼지 ASF의 확산속도가 더욱 빨라져 4개월~7개월후 전북까지 도달할 것으로 예상돼 농식품부 김인중 차관보는 전북도를 방문해 시·군별 ASF

방역실태를 점검했다.

방역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한 한돈협회 임원들과 14개 시·군 방역과장도 참석해 ASF 방역에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

전북도는 방역대책의 일환으로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강화된 방역시설 지원을 위해 자금지원을 확대하고, 오는 4월까지 조기설치한 농가는

ASF 발생시 살처분 보상금 상향 지급 등 인센티브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또한 ASF 협의체를 구성해 방역시설 설치상황 공유와 함께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하고, 양돈농가 688호를 대상으로 방역시설 설치공사에 따른 방역 취약요인 관리를 위해 공사안부 소독, 모돈사 방역관리 등 차단방역 실태점검을 실시한다. /유호상 기자

토·일요일 신문 쉽다



전북도는 미래전지 소재·부품분야 핵심기술 개발을 위한 기술사업화 협업 플랫폼 구축 지원사업 현장 간담회를 1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진행했다고 밝혔다.

## 전북 미래전지 소재·부품 기술사업화 본격

### 도, 과기부와 협업 플랫폼 구축 지원 현장 간담회 진행

전북도는 미래전지 소재·부품분야 핵심기술 개발을 위한 '기술사업화 협업 플랫폼 구축 지원사업' 현장 간담회를 1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진행했다.

'기술사업화 협업 플랫폼 구축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은 지난해 6월 과기부(연구개발특구재단) 공모에 선정돼 오는 2023년까지 국비 84억원, 도비 28억원 등 총사업비 122억원 규모로 기업과 연구기관 등이 공동으로 7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과기부에서 정부-지역 간 소통강화 및 사업 추진 현장 의견 청취 등을 위해 추진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권석민 과기부 과학기술정책지원관과 전대식 전북도 혁신성장산업국장, 사업 주관기관인 전북테크노파크 및 과제 수행기업과

연구기관 등이 참여했다.

이번 구축 지원사업은 지역혁신주체(전북테크노파크) 중심으로 미래전지 소재·부품산업 밸류체인기반 기업 및 연구기관 등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유망기술 발굴, R&D 과제 검토 및 자문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기업의 수요를 바탕으로 기업·연구기관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과 함께, 해외 진출을 위한 국내외 인증 및 창업지원 등 전주기 지원체계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주요 협업과제로는 이차전지용 소재 개발 슈퍼캐패시터 개발, 탄소기반 연료전지부품 개발이다.

비나리, 엔피에너지 등 도내 기업과 한국탄소산업진흥원, 한국전자기술연구원 등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개발 중이다. /유호상 기자

또한 자동차 부품 및 시스템 국제공인 인증기관인 VCA Korea가 참여해 인증 컨설팅과 실차 검증을 지원한다.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과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등도 상용화 기술 개발을 위한 시스템 검증 및 신뢰성 평가 등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부터 본격적인 기술개발과 사업화에 집중하고, 한솔케미칼과 에너비메타리 등 친환경 재료를 이차전지 공정 기술 개발 등 신규 과제도 진행할 예정이다.

전대식 도 혁신성장산업국장은 "세계적인 친환경 기조에 따라 이차전지 시장이 미래산업의 중심으로 급부상할 것"이라며 "이차전지 및 전지소재 핵심기술 고도화로 미래전지 전·후방 연관산업 성장을 가속화하고, 친환경 산업의 주도권 확보와 탄소중립 실현을 앞당길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아무리 추워도  
봄은 옵니다

2/4 입춘  
2/19 우수  
3/5 경칩

희망과  
확신

2022년  
코로나 종식!!

전주 현대옥  
JEONJU HYUNDAIOK  
Korea Restaurant Since 1979